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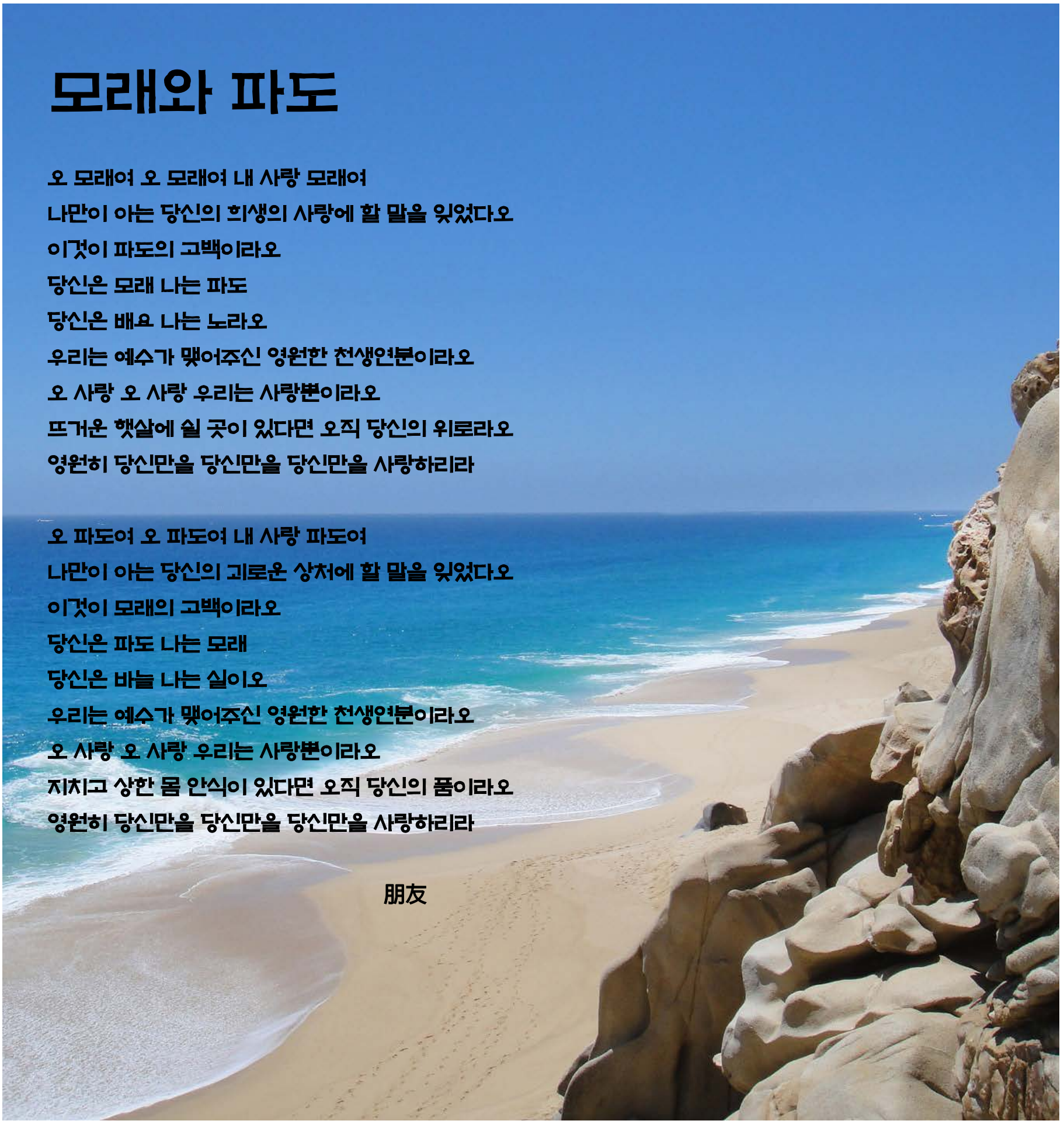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월 21일 (제934호)

주일예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모래와 파도

오 모래여 오 모래여 내 사랑 모래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희생의 사랑에 할 말을 잊었다오
이것이 파도의 고백이라오
당신은 모래 나는 파도
당신은 배요 나는 노라오
우리는 예수가 맺어주신 영원한 천생연분이라오
오 사랑 오 사랑 우리는 사랑뿐이라오
뜨거운 햇살에 쉴 곳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위로라오
영원히 당신만을 당신만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오 파도여 오 파도여 내 사랑 파도여
나만이 아는 당신의 괴로운 상처에 할 말을 잊었다오
이것이 모래의 고백이라오
당신은 파도 나는 모래
당신은 바늘 나는 실이오
우리는 예수가 맺어주신 영원한 천생연분이라오
오 사랑 오 사랑 우리는 사랑뿐이라오
지치고 상한 몸 안식이 있다면 오직 당신의 품이라오
영원히 당신만을 당신만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朋友

붕 우 컬 럼

최고의 연장

나는 중국으로 나가 선교를 하겠다는 어느 주의 종에게 말했다. "중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려면 먼저 중국어를 배워라. 중국 선교에 중국말은 기본이고 필수지. 언어는 최고의 연장이란다. 연장이 좋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니?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동안 절대 한국 사람을 만나지 마라.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방과 후에 한국 사람끼리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말짱 도루묵이야. 네가 그렇게 일 년만 노력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 충분히 중국어로 설교할 수 있을 거야." 외국생활 수십 년 해도 그 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한인 타운에서 물건 사고, 한인교회 다니고, 한국 친구들하고만 놀기 때문에 평생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그렇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말인 방언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과 비밀로 대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그 주의 종에게 한국사람 속에서 나가 오직 중국어 공부만 하라했듯이 구습을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세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예전 생활대로 퇴근 후 술 마시고, 똑같이 담배 피우고, 똑같이 세속적인 언어를 구사하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가능한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늘 모이기에 힘써 확실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대충할 거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선이 모든 것의 답이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1:1~12)

다시 한 번 천국을 침노하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힘센 자들, 약탈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씀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 힘이나 돈이나 심지어 선(善) 같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복락을 맛보며 살려면 필사적인 각오로 은혜를 사모하며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물론 침노는 불법입니다. 남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면 불법이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도 불법이고, 남의 물건을 강탈해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침노하는 것만은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작정 엄마 젖을 찾는 것이 정당하듯 말입니다. 또한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국에 오는 것은 물론이요, 사는 동안에도 천국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인의 머리가 되어 남에게 주며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삶 자체가 산 위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여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門)은 열리라고 있고 문제는 해결되라고 있다

여러분, 침노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는 그냥 대강, 적당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무대포로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삶에 배수진을 치고 '못 받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달려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사자를 부여잡고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줄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은 심정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침노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될 때까지 젖 먹은 힘까지 다해 구하면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친구에게 보리떡을 강청했더니 결국 보리떡을 얻어낸 것처럼 말입니다(눅11:5~8).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와 고통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까지 쳐들어간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눈을 뜨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른 바디매오나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치료하겠다고 남의 집 지붕을 뚫은 네 명의 친구들이나 하나같이 천국을 침노한 자들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칭찬하신 것을 아십니까? 곧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침노'라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가 갖고 싶거나 먹고 싶으면 사줄 때까지 울고, 그래도 안 사주면 아예 땅에 주저앉거나 심하게는 바닥에 뒹굴며 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체면 따질 거 없습니다. 무슨 자존심입니까? 내가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무슨 체면이고 자존심입니까?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미쳤다는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하혈하는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을 입었음을 기억합시다. 가끔 저 봐주느라 안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미안하게 매주일 안수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침노해서 빨리 낫고, 빨리 응답받는 게 저도 좋습니다.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처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인데, 사회적인 체면이 있지 어떻게 부르짖나.'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투구와 갑옷으로 멋지게 감쌌지만 그 안에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나아만 장군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투구와 갑옷이라는 자존심과 체통을 벗어야 천국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노하려면 인내와 집념이 필요합니다. 침노란 벨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철옹성이라도 뚫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조금 기도하다가 '이건 안 되나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너 번 안수 받고 '이건 못 고치나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기도의 독이 덜 차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떨어지는 물방울로도 바위를 뚫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인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처럼 집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희망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꿈도 여러분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너무 빨리 포기하고 좌절해서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제목이 있습니까? 침노해야 합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천국열쇠입니다. 열쇠를 가지면 어떤 문도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요, 기도가 없는 자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도 침노하는 신앙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마귀란 놈이 우리의 구원을 갈취하려고 늘 악한 궤계를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천국에 못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아성찰이나 도를 터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늘 악한 것들과 싸우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 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전투의 가장 큰 무기는 '성령충만'입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성령충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예배에 한 시간 이상 기도만 시키려고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천국생활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침노하는 신앙, 침노하는 믿음, 침노하는 정신으로 살 때 내세와 금세에 천국이 도래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9~11)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침노하는 신앙, 곧 믿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을 쟁취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2018년 신년사 ::

새해 매일매일 감사로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낮추시고 높여주시고 재충전할 기회 주심에 감사! 핍박도, 고통도, 고난도, 병도 축복인 줄 알게 해주심에 감사! 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던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 같은 길을 걸어오셨다'는 말씀, 그런 체험도 하게하심에 또한 감사! 모함, 핍박, 최루탄, 방망이, 칼…, 여러 모양으로 사탄의 역사 속에 목회하신 목사님의 그런 체험도 하게하심에 또 감사!

모든 게 감사뿐입니다. 지극히 천한 저를 남미지역 선교에 세워주시고 사용해주신 하나님, 많이 부족한 저를 때론 훈계하시고, 때론 격려하시며 친정아버지처럼 사랑해주신 목사님, 언제나 기도해주신 한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돌아보니 눈물로 감사할 일뿐입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더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부럽고, 장차 받으실 영광의 면류관, 나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받기위해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또 목사님을 도와서 이곳 남미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2018년을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중심교회 성도여러분, 몸은 비록 멀리 있지만 우리 파라과이, 우루과이 교인들 모두 열심히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옷들과 피아노 등 153구제물품을 해마다 많이 보내주심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우리 교인들은 항상 사랑에 빚진 자 되어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드리며, 이곳 남미 집회를 통해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이현숙 선교사

행복한 순간

저는 이번 지방집회를 통해서 너무나 멋진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한분 한분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앞을 전혀 보지 못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두 눈이 실명되어 보지는 못하지만 두 눈을 가지고도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얼굴 표정은 항상 웃고 계셨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12월에 기도원집회에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혼자서요?" 그랬더니 '혼자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기도원 가는 버스를 어디에서 타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알아봐드릴게요."

대답하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보다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 전날 주일예배를 서울에서 드리신다고 해서 '그럼 그곳에서 부탁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기도원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돌아오셔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속의 음성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의 사랑과 배려에도 감사했고요."

그 기쁨과 행복에 연신 말씀하시느라 전화를 끊지 않으시고,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딸'이라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여름에도 기도원집회에 갈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남편과 주일예배에 참석하겠어요."

주일날 남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오시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지, 예수님을 소유하면 앞을 보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일본예수중심교회
김장길 목사

믿음은 한결같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한다. 지나간 한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들고 어느 곳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 이다. 한번뿐인 인생인데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진정한 삶은 무엇일까? 기도 중에 '한결같음'이란 키워드가 떠올랐다.

"한결같다는 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말 참 듣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한결같은 그 모습과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아니면서 상대에게 한결같지 못함을 탓한 적은 없었나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감동은 한결같음이란 생각이 드네요. 사람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도 한결같음이고요.

늘 사람다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00님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건 결국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내가 한결같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단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과 사람사이 한결같은 이의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기 위해 몇 걸음 정도는 양보하고 몇 걸음 정도는 손해 보더라도 그냥 눈감아 넘어가는 아량을 가슴 한켠에 키워갈 수 있었음 하네요."

– 배은미의 시인의 "새벽편지"에서 –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결같음을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는데 잘사는 선진국가일수록 기독교는 무너지고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은 물질만능과 쾌락에 빠져 한결같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가 그렇고 한국도 그 뒤를 따르며 급속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 교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새로운 곳에 예수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이 세대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보고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호주에도 성령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시드니 집회기간 동안 일주일내내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예수중심교단이 합심하여 기도한 대로 비가 오지 않는 표적이 있었다.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자가 고침을 받았고, 허파에 이상 있는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허물어진 곳을 다시 수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한결같음에 믿음과 기도가 있다면, 더디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2018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적용해본다. 예수님처럼, 목사님처럼 우리들이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간다면, 길을 잃지도, 사람도 잃지 않으며 사람을 얻는 최고 축복의 해가 될 줄 믿는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드니 예수중심교회
문정훈 목사

Good News

최근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욜로(YOLO)'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욜로'란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이나 남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고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는 2011년 미국의 빌보드 차트 14위 곡인 드레이크의 'The Motto Motto'의 가사 중에 'You only live once'(네 인생은 오직한 번뿐이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욜로족'들은 내 집 마련이나 노후준비보다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고상한 취미나 자신의 스펙을 쌓아간다고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혼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내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생각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 시종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죽은 뒤에는 그 누구라도 심판대 앞에 서야할 존재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성경에서 배운다 ::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제 청년시절 일입니다. 한 청년 새신자가 수요예배에 온 것을 발견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달려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걸어보니 집사님의 자녀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련다며 밝게 웃었고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지요. 하지만 게으른 마음이 들었던 저는 마음속에 전화심방을 해야 한다는 감동을 그냥 지나친 채 1~2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새신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다시 전화를 하려 할 쯤,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청년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은 뒤 평안히 소천(召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바로 전화심방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던 제 자신에 대한 심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돌아옴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도 당신을 정말로 환영하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기 원한다'는 말을 미처 전하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로 남았지요.

얼마 전 들은 한 집사님의 간증도 유사합니다. 한 아파트에서 자주 인사하며 지내던 분이 있는데 그 분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님, 다음에요. 하나님, 기회가 될 때요.' 라며 차일피일 미루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분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날 밤, 집사님의 꿈속에 산발머리에 시뻘건 눈을 가진 귀신의 형상으로 나타나 멱살을 잡고 '당신이 나한테 예수만 전했어도 내가 여기 안 왔잖아!' 라며 울부짖더랍니다. 이후 그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즉시 바로 바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뒤로 미루는 습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명령하시기에 우리의 불순종과 머뭇거림이 자칫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종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였고, 베드로 역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여 고넬료가 보낸 종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이후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계시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전하는데 베드로와 고넬료 어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들 수 없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 역시 '남쪽으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천사의 계시에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덕분에 그곳을 지나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목말라하는 기막힌 타이밍에 도착하게 되었고, 결국 그 말씀의 주인공이 곧 예수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기로 외치는 2018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모두 때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할렐루야!

하인명
renming@daum.net

:: 신앙논객 ::

변하지 않는 가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약 5천여 명의 재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때 그 곳의 분위기는 집중하는 사람 하나 없이 어수선했고, 목사님은 달랑 마이크 하나만 쥔 채로 단이나 강대상도 없이 평평한 바닥에 서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5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높이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50달러를 갖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자 거기 모인 5천여 명이 일제히 손을 들었고, 그렇게 단번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지폐를 구겨서 살짝 찢은 뒤 "여전히 이 50달러를 갖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재소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돈에 침을 뱉은 다음 바닥에 던져 짓밟은 뒤 다시 물었습니다. "이래도 이 돈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번에도 재소자들 중에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이용을 당하셨다고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모욕을 당하셨어요? 물론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가 있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처럼 구겨지고 찢기고 짓밟혀서 더러워진 지폐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단 1달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연약한 심령 때문에 설령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혼내고 다그치고 매를 들지만 그만큼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엔 기준 미달이야.', '나는 하나님이 실수로 창조하신 게 분명해.'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그 분이 주시는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후회되고 낙심되고 좌절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올해는 꼭 그 진가(眞價)를 발휘할 수 있기를.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수요예배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533-9191

:: 진리의 학당 ::

유일하신 하나님(요17:1~3)

하나님은 영원 전, 하늘이 있기 전부터 홀로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신들 모두를 창조하셨고, 조물주는 그들 신의 본질은 지으셨으나 형상은 창조하지 않으셨으므로 피조된 신들은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신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유일하신 신이시므로 그 형상은 현현이 보편적인 존재이시다. 예수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히1:3, 고후4:4, 빌2:6, 골1:15).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전무하지만 그 형상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이가 인자됨을 인하여 세상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요1:18), 인자의 영광을 확신함으로써 눈으로 뵙지 못한 하나님을 또한 확신하고(요일2:10~12)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말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임을 믿게 된다(요5:36).

형상은 보편성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가(요일5:1~2) 하늘로 가셨고 지금도 그는 하늘에 계신다(히1:3).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면(살전4:16~17) 아버지를 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께서는'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다(요14:8~9).

인간은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창1:26). 사람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육체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인자가 오실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이다(롬5:14). 그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서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그와 같은 신은 다시없다.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의 본질로서는 아버지요 본체로서는 아들이요 본영으로서는 성령이시다. 만유의 근본이 아니고는 하나님일 수 없고, 역사적 실존이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또 영이 아니면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듯 역사적 실존인 형상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피로써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로 하늘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으니(히10:19~20)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의 증거를 받으셨다(요일5:6).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요일5:5),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관념이나 신념으로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실상을 체험하는 것이다(요15:7).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희미한 관념 속에 어떤 신적 존재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또 스스로 우상이 되어 종교적 위로를 꾀한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은 그 형상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마27:22~23).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다(요20:31). 그 형상은 인자로서 하늘보좌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셨으니(요14:26),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요14:23), 자녀의 권세와 복을 누리며 산다.

자존(自存)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이로서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복 되신 주인으로서 유일하시다. 성취하실 뜻이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요, 스스로 가지신 예수이름을 아들과 공유하시는 유일신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모양이다.

박덕규 목사